

“자금서 컨설팅까지...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버팀목 역할”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이춘재 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 시대 세계 무역을 재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중해, 북해, 대서양, 태평양 등 해양시대를 열며, 중세 이후 최소 수 백년 동안 지금의 부를 이룩해 냈다.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이들은 대항해에 나서 식민지들을 개척하고, 농산물에서 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물들을 본국으로 끌어와 중흥기를 열었다.

10세기부터 지중해를 오가는 해상무역의 장악한 것은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등 남부 이탈리아 도시들이었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유럽,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슬람국가 등과 교역을 통해 지중해 연안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제노바는 나침반과 대규모 선박 건조 기술로 1291년 지중해와 대서양의 경계인 지브롤터해협을 거쳐 북해로 가는 해상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13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는 독일의 뤼베크, 함부르크, 쾰른, 브레멘 등 한자동맹 도시들이 정치·경제적인 연합체를 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대항해시대는 유럽의 소국 포르투갈이 열었는데, 이후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항로 개척에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 곳곳의 드넓은 식민지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16세기 후반부터 인적·경제적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식민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인들이 국가와 공동출자해 선단을 구성하고 해외무역 독점을 시도했다. 영구권과 네덜란드의 동인도·서인도회사가 대표



적인 사례다. 절대군주의 중상주의가 모습을 드러내고 중앙은행으로 대표되는 국가독점체제가 만들어졌다. 18세기 대서양이 중심이 되며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삼각무역이 부상하고, 영국 런던이 그 심장부가 되었다.

1000여년에 걸쳐 유럽 국가들이 얻어낸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방 이후 80년도 안 돼 실현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러움, 새로움, 대단함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세계 유행이 없는 압축고도 경제 성장에 이어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열풍은 모두 수출의 힘이다. 다른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사고자 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를 항공·선박 등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 능력, 혁신을 통해 꾸준히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급증하는 김 수출 뒷받침 위해 내년 초 목포 수출지원센터 신설 최신 업계·시장 동향 점검하고 대책 제공하는 지자체 역할 중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수출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다.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기여도가 무려 1.17%p로 전체 경제 성장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중 역시 35.7%에 달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은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6855억 달러, 내년에는 2.2%가 더해져 700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조선,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이다.

1970년 수출액은 8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것을 감안하면, 54년만에 수출액은 826배 급증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을 이끈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 1976년 7월 법정자본금 1500억원에 설립, 이제 막 세계 진출에 나선 조선업체들의 지원부터 시작했다. 1971년 10월 고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형 조선소 사업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43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한지 5년만이다. 당시 정회장은 영국 런던 선박 컨설턴트 회사 애플도어의 찰스 톰보트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추천서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부터 차관 제공 결정을 받아냈다.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최초로 수출 관련 국책은행을 만든 것이다.

이후 중동건설 붐에 따라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를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방산, 원전, 고속철

등 초대형 해외 사업 수주 지원부터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지원,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 등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기업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자금, 관련 시설투자 자금,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맞춤형으로 저리의 경쟁력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다양한 이행성 보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자체 자금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대외경제협력기금(개도국 차관 지원), 공공방안정화기금(글로벌 벨류체인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어 수혜 기업들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기업 자체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개도국에도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어 시장 개척을 바라는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에 서울 본점과 10개 지점, 3개 출장소, 국외에 25개의 사무소와 5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지점, 여수출장소 등이 있으며, 이춘재(57)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순천고, 고려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와 고시를 준비하다 1993년 12월 입행했다. 자금시장단, 중소기업수출금융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쳐 2002년부터 2년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며, 전대금융부장, 여신감리부장 등 여러 자리를 경험하고 고향에 내려왔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비하여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 지역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촉 철저한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직접 현장에서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전남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광양 출신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그동안 쌓은 능력과 지혜, 노하우를 쏟고 싶다는 그에게 지역 수출 진흥 방안, 기업 지원 대책, 지자체에 바라는 점,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조언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7월 9일 취임 이후 5개월여만에 벌써 성과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7월 인사발령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내려오게 됐다.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다양한 제도, 사업들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겠다고 각오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 협력업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 CEO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K-푸드의 열풍 속에 김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2025년 초 목포에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해 김 관련 기업들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을 앵커기업으로 키워내고 그 효과가 확산되어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 신규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DH오뚜기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현대차그룹 뿐만 아니라 추후 테슬라 등 다른 외국기업에도 자율주행 통신부품 등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는 현지 출장도 다녀왔다.

-광주에 처음 근무해보는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은행, 본부 조직개편·임원 인사...부행장 5명 교체

조직 안정·영업력 강화

광주은행이 영업력 강화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부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우선 광주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부행장 5명(박종춘, 조계준, 양성현, 한영근, 정장주)이 퇴임하고, 신임 부행장 5명(김종민, 임형수, 고재덕, 변미경, 김우진)을 내부 발탁해 선임했다.

각 부서의 역할 강화 및 비이자영업 확대를 목표로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대표적인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기존 '기관영업부'와 '신차연금부'가 각각 '기관영업본부'와 '신차연금부'로 격상돼 업무 범위가 강화됐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기관영업과 신차 및 연금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이자영업본부'를 신설했다. 비이자영업본부에는 카드사업부, WM고객부, 외환사업부가 배치돼 비이자 수익 확대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김종민 부행장 임형수 부행장 고재덕 부행장 변미경 부행장 김우진 부행장

강화하는 등 각 사업부서들 간 협력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상품전략부 내에 '외국인전락사업팀'을 신설해 외국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역대 최대

연체율도 9년여만에 가장 높아

지난 3분기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역시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19 여파 및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앞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면서 연말 송년회 등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향후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될 경우 이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역시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업자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 규모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래 최대치다.

매년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2021-

2022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던 시기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을 보면 올해는 분기별로 평균 0.4% 대출잔액이 증가했고, 지난 2021년에는 3.1%, 2022년에는 2.9%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도 지난 3분기말 기준 75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753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4억2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 3분기말 전체 금융기관 기준 1.70%로 지난 2015년 1분기(2.0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할 것 없이 모두 치솟았는데, 은행권 연체율은 올 3분기말 기준 0.61%로 전년(0.46%)보다 높았고, 2022년 3분기(0.19%)와 2021년 3분기(0.19%)보다는 3배 이상 뛰었다. 비은행권 연체율 역시 4.74%로 전년 동분기(3.24%)를 훨씬 상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광주TP

'레전드50+' 성과 공유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가 지난 23일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이하 레전드50+)의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레전드50+는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켜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참여기업들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TP는 현재 지역 주력사업 성장 등 3개 분야를 지원 중에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광주전남중기청 정수금 과장, 광주TP 김영집 원장, 레전드50+ 참여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24년 레전드50+ 사업추진경과와 우수성과 공유, 2025년 레전드50+ 세부지원 내용과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지역 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 그리고 각 사업별 1:1 상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신세계 다음달 9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광주신세계가 오는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진>

이번 선물세트로는 현지 바이어가 직접 추천하는 설 선물세트 130여종을 선보이며, 수산·정육·과일·식료품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설 선물세트에 손꼽히는 과일 세트 '셀렉트팜'은 신세계 그룹이 산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상급 품질의 과일로 구성된다. 광주신세계는 '셀렉트팜 사

과배 혼합다육', '로컬 알찬 사과 배', '셀렉트팜 제주겨울향기', '애플망고 만복' 등을 준비했다.

축산 역시 바이어 및 지정 중매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한 '신세계 압소 한우 만복'과 한정수량으로 판매하는 '명품 한우 만복', '안성마춤 한우 만복' 등 축산 직매입 제품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수산 매장에서는 '따라 진갈치', '성산포 은갈치', '참전복 다육' 등 대표적인 명절 선물용 품목들을 직매입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TP,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가 오는 1월 16일까지 광양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36개실로, 40평대 1실, 20평대 1실, 10평대 10실 등 다양한 규모로 마련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평당 8970원이고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실비로 부과된다.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순천대 글로벌30 광양 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이며, 전남광양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철강-이차전지 실습교육장과 운영사무실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모집 업종은 1차 금속, 전자부품,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이며,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30일 오후 광양만권 소

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025년부터 전남테크노파크는 광양시로부터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며 "광양만권 소재부품 산업화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15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0	31	32	35	36	37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874,349,668	35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561,685	79
3	5개 숫자일치					1,520,684	3,354
4	4개 숫자일치					50,000	146,890
5	3개 숫자일치					5,000	2,440,804